

꽃다발 행사 사라지자 화훼업계 '한숨'

코로나 시국 축제와 입학·졸업식 취소로 개점 휴업 농가·꽃집 "코로나 이전 대비 매출 70% 이상 떨어져"

"코로나19로 다들 어렵겠지만, 꽃은 생필품이 아닌 지라 원래도 매출 대부분을 각종 행사에 의존했죠.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지속될 지 몰라 눈앞이 캄캄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화훼업계의 한 해 '특수'가 2년 째 사라지고 있다. 각종 행사와 축제, 졸업·입학식이 아예 취소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 치러지면서 제주지역 화훼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제주시 삼양동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수익이 거의 70% 이상 줄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졸업식 당일 예약이

보통 30건 이상이라, 졸업식이 같은 날 겹치는 등 예약이 빡빡한 경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던 때도 있었다"며 "올해 꽃다발 주문은 단 6건 밖에 없었다. 개점 휴업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울상을 지었다.

13일 도내 화훼업계에 따르면 화훼농가, 꽃집 등은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해 1월부터 매출에 직격탄을 맞았다.

초·중·고교 등 각급 학교의 졸업식이 이어지는 1, 2월은 화훼업계 최대의 대목이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시작해 이번 졸업 시즌까지 방역

을 위해 학부모마저 참석하지 못하는 비대면 행사로 대부분 치러지고 있어 꽃다발 예약이 종적을 감췄다. 현재 각급 학교는 제주도교육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졸업식 운영 방안'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부터는 학부모와 외부인사의 참석이 제한되고 있다.

특히 겨울철엔 1송이씩 팔거나 단으로 묶어 파는 장미, 프리지아 등 생화가 걱정이다. 꺾어진 생화(절화) 특성 상 난방 등을 통해 보관하며 수명을 늘려야 하는데, 보관 기간이 일주일에서 길게는 열흘밖에 되지 않는다. 그 기간 동안 팔리지 않으면 폐기처분되기 십상이다.

제주시 아라동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B씨는 "보통 일주일엔 한 번씩 화훼농가로부터 꽃을 구매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변색되거나 시들어 일주일 정도 지나면 판매할 수 없다"며 "보관 기간이 지나서 폐기하는 생화가 절반 정도 된다"고 했다. 이어 "최대한 재고를 줄이기 위해 화훼농가로부터 구매량을 이전에 비해 절반 가량 줄었다"고 말했다.

이영석 제주화원협동조합 이사장은 "화훼업계의 대목으로 졸업식·입학식, 어버이날, 공공기관 인사철 단 3번을 꼽는다"며 "졸업식 뿐 아니라 각종 행사도 줄줄이 취소되면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그나마 매출이 회복되던 때는 지난해 5월 어버이날 시즌 뿐"이라고 화훼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이어 "곧 공공기관에서 인사철이 시작되는데, 그나마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제주시 평준화 일반고 34명 탈락 합격선도 61%대 기록해 최근 3년 중 최고치

제주시 동지역 일반고 쏠림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교육청은 2021학년도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합격자와 배정결과를 13일 발표했다. 평준화 일반고는 남녕고, 대기고, 신성여고, 오현고, 제주사대부설고, 제주여고, 제주제일고, 제주중앙여고 등 8곳으로 모두 제주시 동지역에 위치해 있다.

올해 평준화 일반고 선발 인원은 총 2634명에 2668명이 지원해 34명이 불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이는 2019년 16명, 2020년 2명의 불합격자가 나온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합격선도 개인석차백분율 61.207%로 나타났는데, 연합고사를 폐지하고 대신 전형을 처음으로 시행한 2019년 63.927%와 지난해 68.197%보다 높아졌다.

배정 결과를 보면 제1지망 학교에 배정된 비율이 72.85%, 제2지망 17.96%, 제3지망 3.76%, 제4지망 1.94%, 제5지망(6지망) 3.50%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평준화 일반고에 떨어진 학생이 많아진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타시도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이 감소했고, 도내 특성 학교로 진학하는 학생 마저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대부분 비평준화 일반고 지원자가 정원을 초과했다. 이는 비평준화 일반고로 진학하는 학생이 꾸준히 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자평했다.

한편 올해 지원자 미달로 추가 모집에 들어간 학교는 제주중앙고등학교(보통과), 성산고등학교(보통과·특성화과),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제주외국어고등학교, 함덕고등학교 음악과이다.

송은범기자

성범죄신상정보 등록 70대 바뀐 전화번호 안알려 벌금

성범죄 전력으로 신상정보가 등록된 70대 남성이 바뀐 전화번호를 경찰에 제때 알리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7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2년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A씨는 신상정보가 변경됐을 때 20일 이내 관할 경찰서에 이를 알려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2월 집 전화와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고도 경찰에 바뀐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상민기자



미세먼지에 갇힌 제주시 13일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해 도두봉에서 바라본 제주시내가 희뿌옇게 보인다. 이상국기자

가축 습격 들개 포획틀 설치 '효과'

제주시, 작년 7월부터 한림·애월지역서 93마리 생포

제주시가 야생에 적응해 공격성이 강한 들개(유기견)가 무리지어 다니며 가축을 공격하고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에 집중 설치한 포획틀이 성과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해 7월 이후 읍·면·동별 들개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을 조사해 대형·소형 포획틀 21개를 집중 설치, 연말까지 93마리를 포획했다고 13일 밝혔다. 한림읍에서 가장 많은 23마

리를 포획했고 애월읍 19마리, 구좌읍 17마리, 조천읍 11마리, 한경면 7마리, 동지역서 16마리를 포획했다.

시의 포획틀 설치해 가축피해가 잦은 한림읍과 금악리 주변에 대형·소형 포획틀 7개를 설치한 결과 같은 장소에서 야생들개 9마리가 포획되는 등 집중 포획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읍면동별 출몰지에 설치해 왔다.

그동안 야생들개는 경계심이 강해

5m 사거리의 블루건 포획이 불가하고, 총기포획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돼야 가능해 포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야생들개로 인한 가축 피해는 주로 닭, 오리, 돼지, 소, 양, 염소, 송아지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최근 피해건수는 2018년 10건·280마리(폐사 기준), 2019년 10건·533마리, 2020년 9건·130마리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금악리 소재 한 한우농가에서는 송아지 4마리가 야생들개의 습격을 받아 폐사하는 등 가금류 외에 송아지, 염소 등도 들개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문미숙기자 ms@halla.com

우체국택배 교섭 결렬... 파업 돌입 수순

제주지역 조합원 80여명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이하 우체국 택배 노조)는 사용자인 우체국 물류지원단과의 단체교섭이 결렬돼 총파업 찬반 투표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체국 택배 노조는 서울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체국 물류지원단과 원청인 우정사업본부에게 더는 대화를 기대할 수 없다며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총파업에

나설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사용자 측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라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이유로 교섭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우체국 택배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 결과에 따라 오는 20일과 21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제주본부에게 더는 대화를 기대할 수 없다며 제주에서 동시다발로 총파업에

이상민기자

"교차로 진입시 예측 출발 하지 마세요"

도내 13개 교차로 소방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설치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구축된 '소방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올해부터 제주에서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시스템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소방차량이 교차로에 접근하면 자동으로 녹색 신호를 우선 부여하는 신호제어 시스템이다. 신호제어 시스템은 화재 등 사고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지극히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

해 선별적으로 활용된다.

제주소방서는 해당 시스템 도입으로 도민들이 교차로 신호주기의 갑작스러운 변경에 혼란을 느낄 수 있음에 따라 소방차량의 우선신호시스템이 설치된 13개 교차로 진입 시 운전자들에게 예측 출발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시스템 작동으로 인해 교통신호가 갑자기 바뀔 경우 소방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할 때까지 일시정지했다가 이후 바뀌는 신호에 맞춰 안전운행해야 한다.

강다혜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엉 사랑으로

축 명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 임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고산리민일동



강창일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